



광양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등 '강력 대응'

시·경찰서·도로공사 합동 일제단속 실시

광양시가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정하고, 차량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인 오는 24일 고속도로 틀케이트 등 시 전역에서 시·경찰서·도로공사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시는 독촉장과 문자발송, 전화폭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 체납세를 자진납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차량차관련 이월체납액은 지난 4월말 기준 과태료를 포함해 60억 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 8명, 경찰서 3명, 도로공사 2명 등 총 13명을 영치반으로 편성하고, 차량 탑재형과 모바

일 영지시스템 등을 활용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차량을 중심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 3회 미만 체납차량과 화물, 승합 등 생계유지 수단차량은 직접적인 영치보다는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치차량 중 번호판 미 반환 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거쳐 체납액을 충당하고, 대포차량 발견할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친 후 차량을 인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은 국토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는 민족 체납

차량은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영치당할 수 있어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민족 자동차 관련 체납세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체납자를 대상으로 문자발송,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사전 안내를 실시해 자진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영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권 징수과장은 "이번 전국 일제 영치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시된다"며 "이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 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부장

화순군, 떡과 놀이문화 접목 '라이스클레이 전문가' 양성

쌀 요리놀이 교육생 22명 라이스클레이 자격증 취득



쌀을 비롯하여 천연재료를 반죽형태인 클레이(접토)로 만들어 주거나 두드리고 굽으면서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일반 클레이와 다른 점은 실제 먹을 수 있고 천연재료로 만들어 피부가 약한 어린이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특징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6회로 진행되었고 라이스클레이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어린이가 좋아하는

화순군은 쌀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쌀 요리놀이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 22명이 라이스클레이 전문자격을 취득하였다.

쌀 요리놀이 전문가 과정은 우리

과일나무 캐이? 채소밭 머핀? 등 물송편 등 자연과 친숙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습이 이루어졌다.

최근 각광받는 라이스클레이는 떡을 먹거리로만 생각했던 기존 개념을 깨고, 클레이처럼 가지고 놀면서 인성, 감성,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어, 오감자극 요리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한국라이스클레이 협회 자격증 과정을 그대로 도입하여 군민에게 보다 편리하게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인 양성의 동기를 부여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개발사업 체비지 분양 준비 박차

광양시는 성황·도이지구 도시 개발사업이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체비지 분양 준비에 나서고 있다.

총 사업비 1,147억 원이 투자되

는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성황동과 도이동 일원 654,761㎡에 8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주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부장

시는 오는 6월 중 체비지 경쟁평가가 완료 되는대로 필자별 분양금액을 확정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체비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부장

순천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오는 30일까지 접수…매월 임대료 10만원 지원



차량은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영치당할 수 있어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민족 자동차 관련 체납세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체납자를 대상으로 문자발송,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사전 안내를 실시해 자진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영치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권 징수과장은 "이번 전국

일제 영치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시된다"며 "이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 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부장

달리 매월 임대료를 최대 10만원씩 적립 지원하는 최초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19세~39세 이하의 1인 가구 취업 준비생으로 오는 30일까지 시민소통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상대적으로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낮은 가구를 우선하고 청년이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순천청년센터 블로그를 통해 공고문 및 제출서류 확인이 가능하며, 시민소통과 청년정책팀(061-749-5008)으로 문의 가능하다.

시민소통과 임영보 과장은 "임대료 부담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 준비를 돋기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당당하게 잘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의 일환이다"면서 "지속적으로 청년센터 조성, 순천청년회망 통장사업, 청년활동포인트제 운영, 순천대학로 활성화사업, 글로벌 웹툰 창작센터 구축, 청년 꿈찾기 펠복도서 확대 지원, 청년문화누리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만날강좌' 강사 모집

내달초 개관 앞두고 생활문화예술 분야 10개 강좌 개설

순천시는 6월초 개관을 앞둔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에서 시민들의 일상적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만날강좌를 개설하고 전문 강사를 모집한다.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는 순천시가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옛 승주군청을 리모델링하여 시민 생활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 공간이다.

'만날강좌'는 사진, 음악, 무용 및 댄스 미술, 공예, 민화, 문학 등 문화예술분야 전반에 걸쳐 10개 강좌의 강사 10명을 선정한 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새로 조성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지하 1층에 3개의 음악연습실과 1층 소규모 공연장과 전시실, 3층 댄스연습실, 동아리실, 녹음실 학습실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며,

창작예술촌 및 문화의거리 공방들과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만날강좌의 강사에게는 일정금액의 강사료가 지급되며, 신청된 강좌는 올해 시범운영기간 중 재료비와 무료강습으로 진행된다. 강사 모집은 25일까지 진행되며, 28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순천창작예술촌 운영사무국(금곡길 43 장안창작마당, 금곡동)으로 접수하면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나주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위해 전력질주

여성친화 서포터즈·여성통계 국민디자인단 회의 개최



나주시는 지역 여성정책 발굴·수립을 위해 호남지방계청과 여성의 삶 실태파악을 협업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통계청과 행안부 국민디자인단 공동으로 선정,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여성정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국민디자인단 김미경 단장을 초청,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working mom)을 위한 맞춤형

정책발굴에 초점을 두고, 회의 구성원의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을 진행했다.

특히 신혼부부 주택 지원, 초보 엄마들을 위한 전용 콜센터 운영, 임신·출산·육아·가사 등 기아드북 제작, 저녁 시간 대 반찬 제공 서비스, 방과 후 육아 프로그램 운영 등 위킹맘의 경제, 가사노동 경감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다.

회의에 참석한 김권영 사회복지과장은 "직장·가사 노동을 병행하는 워킹맘들에게 도움이 될 실질적인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발굴, 수립 과정에 꼭 반영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화순군 농특산물 소개:

- 파프리카
- 복숭아
- 금귤베리
- 느타리버섯
- 산양삼
- 방울토마토